

Beyond Division to Peace and Cooperation

DMZ Forum 2020

DMZ wants Peace

2020. 9. 17(Thu.) ~ 18(Fri.) | www.dmzforum.or.kr

평화운동 협력세션 1-3



Hosted by  Global Inspiration
GyeongGi-Do

Organized by  경기연구원
GRI Gyeonggi Research Institute

KINTEX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
Northeast Asia Peace Economic Association

 KOREA
PEACE
APPEAL

Sponsored by  Ministry of Unification

[평화운동 협력세션 1-3 : 한국전쟁, 어떻게 끝낼 것인가?]

1-3 세션에서는 '한국전쟁, 어떻게 끝낼 것인가?'를 주제로, 이태호 시민단체 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이 좌장, 발표에는 백화운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상임집행위원, GPPAC 동북아시아위원회 메리 조이스 코디네이터, 케빈 마틴코리아 피스 네트워크 의장, 토론에는 잘갈사이칸 엔자이칸 블루 배너 의장,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강주석 베드로신부가 참여했다.

백화운 상임집행위원은 한국전쟁으로 촉발된 군비경쟁, 한반도 준 전시상태 및 억압적 통제, 간첩 조작 사건, 민간인 학살 사건 등의 부작용을 나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남북 및 국제사회의 대화를 언급했다. 남북 및 북미 간 불신과 적대의 고착화와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 핵우산 정책은 한반도 평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시민의 힘으로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한국전쟁 종전 캠페인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 캠페인은 휴전협정 70주년인 2023년까지 1억명 서명을 목표로 하고, 한반도 긴장 상황에서 고통받은 한반도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당국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평화의 견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 서명은 남·북·미·중을 비롯한 한국전쟁 관련국과 유엔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참여를 호소하는 웨비나 등의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시민 사회의 협력을 기대했다. 정부가 실패한 한국전쟁 종전협정은 시민 사회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이를 수 있다고 마무리했다.

메리 조이스 GPPAC 동북아시아위원회 코디네이터는 한국전쟁 종전협정 체결의 실패는 각국 시민 사회의 현실적 참여에 국제적 지지의 필요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북아 국가 간 적대적 언사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역내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2020년의 한반도 상황은 위중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미국 내 한반도 평화의 관심도가 낮아지고 있어 한반도 평화의 국제적인 의제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북아의 지역협력메커니즘 부재하며, 6자회담 중 일부 회담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태라고 언급했다. 이로 인해 동북아 내 시민 사회의 역할이 중요해졌으나 상호 신뢰 부족과 적대의 고착화로 차별, 혐오발언이 나타난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장기적 이니셔티브가 부족하므로 선제적 시기에 시민 사회의 참여 기반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몽골 시민 사회의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는 제도화된 동북아 지역 평화 보장을 위해 시민 사회가 정기적으로 참여하도록 플랫폼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는 남북 및 6자회담 당사자들이 위기와 안전 시기 모드에 참여해온 유일한 상설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참여연대 및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의 단체가 한반도 긴장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참여를 했고, 이는 지속적이고 제도화된 플랫폼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와 시민 사회를 포함한 동북아 전 지역이 한국전쟁 종전을 위한 다자협력을 보여준다고도 강조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청년과 여성의 자발적 참여도는 높지만 그 수용률이 낮음을 지적했다. 현재 한반도 평화 이니셔티브는 주목받지 못 하고있는 상황이므로 국제사회 및 남북 차원에서 더 많은 협력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전세계 참석자들이 구체적인 협의와 논의를 통해서 한국의 피스 어필을 어떻게 확장시킬지 논의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케빈 마틴코리아 피스 네트워크 의장은 한국전쟁 종전을 위한 장기적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제한적이고 오만한 태도로 북미대화에 임했고, 이 때문에 북한의 확실한 제안을 일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 공화당 의원들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무관심에 대해 지적했다. 차기 미국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을 기대할 수 없으나, 이를 위한 한국계 미국인들의 정치적 활동에 주목했다. 더불어 이들과 한국 내 진보 성향 인사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기 의회와 정부의 변화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나, 조 바이든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될 경우 한반도 평화에 대한 미국 내부의 접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시민 사회 간 협력과 K-POPI나 서포터즈 등의 미디어 플랫폼 및 줌 컨퍼런스와 웨비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하며 의견을 종합했다.

잘갈사이칸 엔자이칸 블루 배너 의장은 한반도가 유일한 냉전 구조를 가진 지역이라 평가했다. 하노이 회담 결렬을 언급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정부에만 맡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NGO 활동을 통해 시민 사회의 정부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며, 제한적 상황에서 지역 NGO의 지속적 소통은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를 통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는 보다 효과적인 프로세스로서 시민 사회 차원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반도는 평화 관련 논의에서 주로 다루지지 않는 이슈이므로 국제사회의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몽골은 이웃국가와 국경 문제가 없고 한반도에 대한 부정적인 의도를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과도 수교한 국가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안보와 교역 문제에서 핵무기로부터 자유로운 국가이므로 이러한 국가적 상황을 다른 국가들이 따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강주석 베드로신부는 한국전쟁과 한반도 평화에 가톨릭 또한 연관되어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주교회의가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비롯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가톨릭의 역할 증대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주교회의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캠페인에 서명하는 등 종교계와 미국 내 시민 사회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